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이인덕 마리아 (1818-1840)

이인덕은 1839년 12월에 순교한 성녀 이영덕 막달레나의 동생으로 어려서 외할머니의 권면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혼기에 이르자 그의 아버지는 외교인과 혼인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인덕은 동정을 지킬 것을 결심하고서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집을 나와 교우들의 집에서 숨어 살았다. 기해박해가 한창이던 1839년 6월, 그는 어머니 조 바르바라와 언니 이영덕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31일, 당고개에서 5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성화_윤계향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CBCK

성령 강림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ㄷ, 29ㄴㄷ-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부속가

오 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본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인간의 창조와 주님의 영



성전 산 위의 황금 사원

예루살렘 구도시의 성전 산에는 황금 사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 기원후 7세기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원 안에는 큰 바위가 하나 보존되어 있는데, 바로 2역대 3,1에 나오는 “모리야 산”입니다. 솔로몬은 그 위에 주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바위는 기초석 foundation stone으로도 일컬어지는데요, 유다교 전승에 의하면 주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신 데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의 흙을 모아 첫 남자를 만드셨다고 하니, 이 바위는 창세 2장에 서술된 창조 이야기의 배경지이기도 한 셈입니다.

창세 2,7에 따르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피조물은 남자입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중요성과 하찮음을 동시에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사람이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겸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자를 만드신 다음, 하느님께서는 에덴에 동산을 꾸며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고(8-9절) 들짐승과 새들도 빚으십니다. 남자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데(19-20절), 이것 역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드러내는 상징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이름을 붙여 주는 건 그가 곧 지배자임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창세 17,5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주군이 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창세 1장에서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지고(26-27절), 하느님의 축복도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28절).

말하자면, 인간은 창세 1장과 2장에서 모두 피조물 세계의 임금처럼 창조된 셈입니다. 물론 하느님처럼 공정과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임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란 타인의 봇, 특히 수탈당하기 쉬운 약자의 봇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마라”(예레 22,3). 이는 인간이 지배자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함부로 다른 피조물을 착취하거나 그 생존권을 마구 박탈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활동은 신약 시대에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요한 20,22)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같은 동사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이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모신 ‘주님의 성전’ (1코린 6,19)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⑧ – 인간관계와 사마리아인의 비유, 낯선 이의 탄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57항)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 제2장의 마무리인 ‘낯선 이의 탄원’(84-86항)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인간관과 인간관계의 원천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인간의 존엄(형제애)을 존중하고 보편적 공동선(사회적 우애)을 증진하는 삶의 모범과 분발을 호소합니다.

우선, 회칙은 ‘참된’ 인간관, 곧 인간 존엄의 보편성을 밝힙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라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태도에서 “다른 이들의 난관에 민감한 열린 마음”을 찾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의 권고대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운다면(로마 12,15), 다른 이와 자신을 동일시할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를 제 몸(이사 58,7)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인간관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심으로 누구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무한한 존엄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버려졌거나 배제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태 25,40.45). 모든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며 동시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이며 벗입니다.

둘째, ‘참된’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보편적 사랑의 궁극 원천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있으며, 성삼위의 관계(공동체)야말로 모든 사회생활의 기원과 완전한 모범이라고 밝힙니다. ‘참된’ 사회생활은 독립된 개체들 사이의 이기적이며 무분별한 싸움이 아니라, 함께 보편적 공동선을 증진하고 사회적 우애를 실현하는 돌봄과 자비의 만남입니다.

셋째, 오늘날 발전된 영성과 신학은 “온갖 형태의 편협하고 폭력적인 국가주의, 외국인 혐오와 경멸,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가 노예 제도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명료하게 단죄하는 데에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오늘날] 교리교육과 말씀의 가르침에서는 생활의 사회적 의미, 영성의 형제적 차원, 모든 인간의 양도 불가한 존엄에 대한 확신,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논거들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86항). ☀

가지치기는 대충하는 게 아냐

집 담벼락 아래에 수국이 피었습니다. 희고 동그런 꽃송이를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지들이 아래로 늘어지고 옆으로 뻗쳐서 자동차들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비만 오면 꽃송이가 젖어서 더 쳐지곤 했지요. 꽃만 키울 줄 알았지, 가지치기를 할 줄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오셨습니다. 수국 나무를 보시더니, “이리면 나무가 위로 크지 못하고 옆으로만 뻗쳐서 안 예뻐.” 그러면서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허리가 아프니 입으로만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잘라봐.” “여기? 알았어.” “저 가지도 잘라내 벼려” “아, 이것도?”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냉혹해졌습니다. “여기 이것도 잘랐으면 좋겠는데.” “헐, 엄마, 이건 너무 굵은데… 쳐내면 훅하지 않을까?”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더 잘라내면 정말 필요한 것까지 없애 벼려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엄마는 의연한 표정을 지으며 “잘라내 도 금세 새 가지들이 올라와.”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지를 잘라내며 살벌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수국 나무가 날씬해졌습니다. 우거진 잎들 속에 숨었던 나무 밑동과 굵은 중심 베틀목이 드러났습니다. “오, 얘가 이렇게 들판한 애였어?” 잘려 나간 가지들도 아픔이나 상실의 흔적보다는 ‘가볍다. 자유롭다. 짐이 내려 놔진 것 같다. 이젠 무거운 꽃송이들을 떠받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두 잘라내면 꽃이 덜 필까 봐, 또 우거진 꽃이 아니래서 지나가는 이들이 안 예쁘다고 할까 봐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평생 울 엄마의 단호한 태도는 처음입니다. 늘 희생적이고 자기 존재감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며 순교자처럼 살아오신 분이지요. 이렇듯 가지치기를 잘하는데 당신을 힘들게 한 남편의 요구는 왜 다 받아주고 사셨을까요.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근심은 왜 덜어내지 못하고 감당하다 쭉 늘어진 수국처럼 병이 나신 걸까요. 엄마는 가지치기하면서 큰 딸인 저만이라도 무거운 짐, 책 임져야 할 일, 쟁겨야 하는 가족에 대한 무게를 덜어내고 편히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가지치기가 잘 된 수국 나무를 보니 제 맘도 가벼워지고 단순해진 느낌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성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바르고 착하고 잘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인생이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 그냥, 살아. 기쁘고 행복하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께서 “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니?”라고 물으실까요. 아니요, “너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니, 너답게 기쁘고 자유롭게 살다 왔니?” 하시지 않을까요.

나만의 옷을 제대로 입고 나다운 꽃을 더 잘 피어내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걸 엄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살살, 가지 몇 개 잘라내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가지치기가 아닌, 엄마처럼 냉혹하고 단호하게, 누군가에겐 잔인할 정도의 자극일지도 모를 그런 가지치기 말이죠. 다 잘라내고 공간이 생기면서 서로 부대끼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느님과 나 자신이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타인의 모습도 잘 볼 수 있겠지요. 가지치기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엄마가 생각납니다. 수국이 피는 5월 성모성월엔 더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아이처럼 안기고 싶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교구 소식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1기

일시 5/22~6/26, 매주(수) 19:30

장소 신양교육원 (의정부시 신흥로 261)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접수 5/19(주일)까지 [회비 6만원]

문의 031-850-1492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예비신학생 모임

고3, 일반	6/2(주일) 13:30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고등부	6/9(주일) 13:30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5/25(토) 16시~18시

장소 파주 엑소더스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주제 연대성의 원리 (각론) 4.16 참사에 대한 사회교리적 접근 – 이종원 신부

신청 및 문의 031-948-8105 (금, 토 휴무) / 1회 참석도 가능

2024 청년 DMZ 평화의 길

날짜 6/29(토)~30(주일) [1박 2일]

장소 파주-연천 (JSA성당 방문 포함)

회비 6만원 (선착순 8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전시] 일상에서 공감미학展 – 노정임·김정연·박주남 3인전

일시 5/25(토)~6/7(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채널 @g_pyeongwha

2024 청년 피스쿨 시즌1 참가자 모집

'평화 배우기'와 '사진 전시회' 등을 진행하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 6/28(금)~30(주일)

장소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대상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 청년 (선착순 30명) 회비 3만원

접수 5/1(수)~31(금)

주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의정부교구 청소년국

※ 2024 청년 피스쿨 시즌1 참가자들에게는 '평화의 섬'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시즌2(7/20(토)~22(월))의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행경비 지원, 일부 본인부담)

문의 031-850-1501~2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전신자 성경 읽기

5/19(주일)~25(토) : 루카 11,37-12,1



5/25(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인사 발령

I. 인사 발령 (5월 7일부)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No.	이름	현 임지	새 임지
1	이종경 신부	홍보국장	겸) 교구장 비서

천주교의정부교구장

손희승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피정

일시: 7/18(목) 18시 ~ 21(주일) 16:40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강사: 황정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주엽동 성당 성체신심 세미나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

일시: 5/23~7/11, 매주(목) 19:30~21:20 [6주간]

회비: 1만원

문의: 010-3433-2027

예수회 센터 토요 피정

일시: 6/8(토) 10시~15:30 (15시 미사)

강사: 배영길 베드로 신부

※ 소정에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 9월~12월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5/30(목)~6/2(주일), 7/11(목)~14(주일)

성경완독: 6/21(금)~29(토), 7/26(금)~8/3(토)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6/25~29 [4박5일]

예수마음기도: 6/25~7/3 [8박9일]

이냐시오영신수련: 6/25~7/3 [8박9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안내

개방의날 무료피정:

6/7(금), 매월 첫(금) 10시~15:30

대침묵피정: 6/21(금)~23(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서울명상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피정: 6/10(월)~12(수),

6/22(토)~24(월), 7/19(금)~21(주일)

성지순례피정: 6/15(토)~18(화)

우도해변포함: 7/25(목)~28(주일)

8/2(금)~5(월), 8/8(목)~10(토)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자연피정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대상 : 청소년부(중고등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가정 회복 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5/20(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5/2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구원의 중재자이신 성모님

강사: 이종경 비오 신부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 6/16(주일)~19(수)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5/31(금)~6/3(월), 7/19(금)~22(월),

8/16(금)~19(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교육 · 모집▶▶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지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주40시간 08:30~17:30)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일시: 6/4(화) 10:30~16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제: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출발: 6/29(토)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활동(봉사인증 가능)

문의: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원어 성경 기초반 – 히브리어, 그리스어

기간: 7월부터 1년간, 매주(수) 19:30~21:30

회비: 30만원 x 4회 / 방법: zoom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요한 회원 모집

대상 :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 6/10(월) / 문의 : 010-9836 8998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형태: 전일제 1명 (정규직)

근무지: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모집: 5/31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근무일: 7/1부터 학습지도 전담으로 유경험자

문의: 031-947-9047

※ 자세한 사항은 caritasdaegun.or.kr 참조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팀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

원서접수: 5/27(월)~6/7(금), 전형일: 6/22(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대상: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일정: 7/13~8/17, 매주(토)

장소: 최양업홀(종림동)

접수: 6/10(월)~28(금)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재)가톨릭평화방송 신입·경력사원 채용

접수: 5/19(주일)까지

문의: 02-2270-2223, cpbc.co.kr

※ 가톨릭평화방송 입사 지원 페이지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길음동 성당 묘원(율대리) 직원 모집

분야: 묘지 산역 및 현장작업자 1명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길음동 성당 (성북구 길음로9길 74)

또는 hope9237@seoul.catholic.kr

문의: 02-912-4612

작가와 함께 그리는 평화

1차 평화교육

- 6/13(서울), 27(줌), 7/11(줌) 19시~21시

2차 제주캠프 - 7/22~25(제주)

진행: 손서정(가톨릭대학교), 요요진(작가),

한성훈(연세대학교)

대상: 만16세~25세

인원: 1차 30명, 2차 12명 (1차 교육 이수자에 한함)

회비: 무료 (단, 항공료는 각자 부담)

문의: 010-3884-0951, www.stfpc.org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지휘자의 영성과 그레고리오 성가 지휘법(가톨릭성가)

일시: 6/6(목) 13시~18시

장소: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401호

강사: 인영균 신부(왜관분도수도회),

최호영 신부, 고승익 교수

회비: 5만원 (교재포함) / 접수: 5/27(월)까지

문의: 010-4513-7605 세실협회 사무국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 아일랜드 (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안내 · 기타 ►►****미래사목연구소 제10차 학술 발표회**

일시: 6/1(토) 13:30

장소: 인천교구청 이안나홀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6 터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100만원 할인)

9/23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58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8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85만원)

10/21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475만원)

12/2 미서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3일, 760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연합 성가 발표회

호평동 세실리아 성가대 및 가톨릭 다른 합창단

모든 이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성가, 가곡, 팝,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5/24(금) 19:30 / 호평동성당 (무료입장)

문의 : 010-7740-966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13(화)~24(토) 스페인남부, 파티마, 루르드 (485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월)~13(금) 발틱3국, 폴란드 (49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언제 어느곳에서든 cpbc플러스



cpbc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25(토)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연락)
	한국외방선교회	6/2(주일) 11시 / 한반도에 머물긴 아까운 교회의 인재		010-8715-2846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이스라엘 축제 중 하나인 “오순절”(사도 2,1)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이고 나서 햇곡식을 하느님께 드리는 봄 수확 감사제로 “수확절”(탈출 23,16), “주간절”(탈출 34,22; 민수 28,26; 신명 16,9-12)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시나이산에서 이뤄진 계약과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50번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테](Πεντηκοστή), 라틴어로는 [펜테코스테스](Pentecostes)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이에게 당신 은총으로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을 성화시키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현장」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 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며’(1코린 12,11)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12항).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 가지 은총을 ‘성령칠은’(聖靈七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이사 11,2 참조).

- 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는 ‘지혜’
- ② 하느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통달’
- ③ 참 진리를 잘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지식’
- ④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식견’
- ⑤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공경’
- ⑥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유혹에 맞서도록 도와주는 ‘용기’
- ⑦ 하느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는 ‘경외’

또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바로 ① 사랑, ② 기쁨, ③ 평화, ④ 인내, ⑤ 호의, ⑥ 선의, ⑦ 성실, ⑧ 온유, ⑨ 절제(갈라 5,22-23)입니다. 이들은 1)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2)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인내, 호의, 선의, 그리고 3) 자신과 관련되는 열매인 성실, 온유, 절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탄생, 곧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시작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